

전 남

주민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 무료라더니...

나주시 혈세로 상담료 지급

상담건수도 120여건 불과...주민 참여도 낮아

나주시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무료 법률·세무상담'에 대해 시와 주민 간에 '무료'개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나주시는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정책가운데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2시간씩 시청 중

합민원실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를 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시민들의 급급증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상담건수는 올 1월 현재까지 ▲법률상담 80여건 ▲세무상담 40여건에 불과하는 등 그나마 홍보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는 상담료로 상담원들에게 총 400여만원을 지불했다. 시민 김모(50·대호동)씨는 "시민

들의 혈세로 상담료를 지급해오고 있으면서 예산을 들여 운영한다 말은 속 배반이고 마치 주민들에게는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선전하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담료를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무료 상담'이라고 강조했다"며 "세금으로 상담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시민들 입장에서 무료가 아닌 것이 맞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환기자 chung@



장흥 매생이 채취 현장

장흥군 대덕을 내져 앞바다에서 매생이 채취 작업이 한창이다. 매생이는 무공해 청정해역의 자연산 해조류로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계절식품으로 철분, 칼륨 등 각종 무기염류와 비타민A·C등을 함유하고 있는 영양 식품이다.

(장흥군 제공)

강진군 자전거도로 26km 신설 2018년까지 125억 들어

강진군이 안전한 자전거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강진군은 오는 2018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간인 도암면 지석리~석문공원~해창~임천 방조제를 경유하고 강진읍과 군동면을 잇는 자전거도로 26.5km를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가 많은 강진읍~해창

(5.38km) 구간에 폭 3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25억원 들어 오는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설치된 도암면 만덕리~신전면 사소리 해안선 구간은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자전거도로 노면보수, 노후시설 교체, 자전거 보관대와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정비에 나선다.

이 밖에도 주민편의와 자전거 이용

종합운동장~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5km를 개설할 방침이다.

강진군 김찬주 도시개발팀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강진읍~신전면 사소리까지 총 20.4km의 해안선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생태보고인 강진만을 비롯한 다산 유적지, 가우도 출렁다리를 경유하는 관광 동선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땀흘린 만큼 깨끗한 시가지 보람”

화순군 간부공무원 릴레이 환경미화원 체험

홍이식 화순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민생현장 체험에 나서고 있다.

홍이식 화순군수와 민중기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27일부터 2월 중순까지 2명씩 1일 환경미화원 체험에 나서고 있다. <사진>

이번 일일 체험은 군민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화순 발전으로

승화시키고, 미화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지만 땀흘린 만큼 깨끗한 시가지를 보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군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한 협조와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노동청 목포지청

맞춤형 일자리창출

11개 사업 17억 지원

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이 이훈원)은 지역특성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남 11개 사업에 17억6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목포지청은 최근 목포고용센터에서 전남도와 목포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비영리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특화사업, 연구 및 포럼사업 등으로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올 1년간 추진한다.

지자체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스포츠·레저산업 서비스 인력양성, 기본 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 ▲목포시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해설사 전문인력 양성 ▲장흥군 아톰-레조 타운 녹색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강진군 청자장인 양성교육 ▲완도군 해양생물 산업분야 기업 Tailor-made형 일자리창출 ▲무안군 유기생물 식품을 활용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이훈원 목포노동청장은 “이 사업으로 인해 42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수행 민간기관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친환경 발전소 유치 지역경제 살리자”

해남군 화원면 200여명 참석 유치위원회 발대식

해남군 화원면에 추진중인 친환경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위원장 박용신) 발대식이 30일 화원농협 회의실에서 추진위원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진위원회는 경과보고와 결의문을 통해 “화원면은 조선소, 골프장, 산업단지 등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안정기반 구축과 해남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만

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피해방지 대책 등을 설정, 해남군과 MPC, 유치위가 함께 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기금 1000여원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해남군과 회사 측에 충분히 전달해 공사착공 직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안정기반 구축과 해남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만

직접 보상을 약속한바 있다.

이날 유치추진위 발대식장에는 10여명의 반대측 주민들의 참석해 한때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해남군과 MPC 측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화력발전소가 화원면에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PC코리아 힐딩스는 화원면 일대 250만㎡ 부지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유엔탄과 LNG를 이용한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대불산단 수출용 요트 공장 가동

제이와이요트 가동식

선박 10척 건조 들어가

수출용 알루미늄 레저선박 제조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우)제이와이요트는 30일 영암 대불산단에서 정남순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선 전용공장 가동식을 가졌다. <사진>

이 회사는 대불산단 부지에 100여원을 들여 알루미늄 수출선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수주를 확보한 알루미늄 선박 10척의 건조에 들어갔다.

현재 37피트(11.28m)급 알루미늄을 맺었으며, 독일 크루즈급 호화요트 2척도 계약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이 회사는 그동안 요트산업에 주력하면서 올해 200여원의 수주와 100여원의 수출 달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세계 10위권 요트 제조회사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고급 레저선박 건조장비 확보,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에 가동식을 갖은 최첨단 기법인 요트 알루미늄 수출선 전용공장은 해양레저관광 시대흐름에 대응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서남권의 지역경제 발전을 큰 획을 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목포대항을 600척 규모의 요트마리나 전문항으로 개발하고, 해양·레저 장비산업용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나고 고급 선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앞으로 중소형 조선산업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현웅 박사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현웅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는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원의 이현웅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현웅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증-4738호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멀리 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